

세계일보

2019년 09월 19일 (목)
국방/외교 06면



DMZ 페스타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파견단으로 근무한 다니엘 토마스 필러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DMZ(비무장지대) 페스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장면을 담은 소형 입체전시물 디오라마를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고양=김

연천도 '돼지열병 확진'... 道, 공들인 DMZ 행사 '결국 반토막'

평화·생태 가치 전세계 알릴 계획
해당 지역 전면 '취소·축소' 결정
국제다큐영화제, 개막식 고양으로
기초 지자체, 동일한 대응 움직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불똥이 튈 경기도의 'Let's DMZ' 행사(9월18일자 3면 보도)가 결국 반토막이 났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에 이어 18일 연천에서도 확진되자, 해당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9·19 평양공동선언1주년을 맞아 도는 DMZ의 평화·생태적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Let's DMZ'를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일부 행사는 파주 임진각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20일에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 21일에는 Live DMZ, 22일 DMZ 프레일러닝 대회가 잇따라 계획돼 있었다.

도가 오랜 기간 역점을 두고 준비한 행사인 만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도 선사리 취소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그러나 이날 연천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 해당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행사는 전면 취소하거나 장소를 변경하기로 했다. 전날인 17일 이재명 도지사가 최고 단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응할 것을 주문한 데다 19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행사를 계획했던 통일부가 행사 장소를 서울로 바꾸고 내용도 축소키로 한 참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 장소를 임진각에서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으로 변경했다. 영화제 부대행사로 임진각 등에서 진행하려던 DMZ다큐로 드투어·캠투어는 아예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예정됐던 Live DMZ, DMZ 트레일러닝도 모두 취소했다. 다음 달 6일 임진각 일원에서 개최하려던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역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Let's DMZ'행사의 한 축인 Live DMZ 등이 취소된 가운데 도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DMZ포럼, DMZ페스티벌은 그대로 진행하되 최고 수준의 방역 체제 하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사

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행사를 취소하는 움직임은 기초단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발생 지역인 파주시가 이달 내 예정된 각종 행사를 취소한 데 이어 포천시도 20일 예정된 포천시 스포스타인 품평회와 다음 달 3~5일 개최하려던 한우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연천군도 10개 읍·면민의 날 기념 행사를 전면 취소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축협은 23~25일 예정된 조합원 연찬회를 취소했고 김포시는 도사헌도 개동식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시도 20일부터 예정된 복숭아 축제를 취소했다.

/경기정기자 kanggi@kyeongin.com

DMZ 콘서트·평화통일 마라톤대회 등

돼지열병에 도내 행사 줄줄이 취소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파주·연천지역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개최 예정이던 행사들이 무더기로 취소 또는 축소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19 평화 공동선언 1주년 기념 'Live DMZ' 콘서트(21일 파주 임진각), '2019년 평화통일 마라톤대회'(10월 6일 파주 임진각), 'DMZ 트래일러닝'(20~22일 파주·김포·연천~철원) 등 3개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파주와 고양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도 크게 축소됐다.

우선 20일 영화제 개막식 장소는 임진각 망배단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영화제 부대행사로 20~21일 파주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제3땅굴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DMZ 다큐멘터리 로드 투어'와 'DMZ 토크투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DMZ포럼(19~20일·고양)'과 'DMZ 퍼스타(18~21일·고양)'와 같이 파주, 연천 등 질병발생지역 및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중점관리지

역' 외에서 열리는 행사도 최고수준의 방역시스템 하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도내 시·군들도 개최할 예정이었던 행사를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파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에 집중하고자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민고충처리 읍부즈만 위촉식'과 '수요포럼'을 전격 취소했다. 포천시도 20일 예정된 '포천시 스타인 품평회'와 다음 달 3~5일 개최하려던 '한우 축제'를, 연천군은 '10개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또 김포시도 이달 28일 예정된 김포도시철도 개통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는 교육기관의 행사도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9~24일 파주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2019 파주 학생 육상 한마당', '지역과 함께하는 학생예술축제' 등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행사와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무기한 연기했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도 학교장이 연수, 행사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안내했다. 김해령기자

ASF 확산방지 DMZ일원 행사 3건 취소

평화통일마라톤·트레일러닝 등 영화제 부대 행사도 축소·변경

경기도는 사람의 이동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주·연천 등 DMZ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를 전면 취소·축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면 취소된 행사는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기념 'Live DMZ' 콘서트, 2019년 평화통일마라톤대회, DMZ 트레일러닝 등 3개 행사다.

또 파주와 고양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대행사 상당부분을 축소하거나 장소를 변경했다.

먼저, 오는 20일 임진각 망배단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영화제의 부대행사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파주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제3땅굴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DMZ다큐로드투어'와 'DMZ캠투어'를 비롯해 'DMZ오픈시네마' 부대행사인 'Korail DMZ특별열차' 운영은 전격 취소됐다.

이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파주지역에서 진행되는 '야외행사'는 모두 취소되거나 개최장소가 변경됐다.

다만 파주, 연천 등 질병발생지역과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중점관리지역'을 제외한 고양에서 열릴 예정인

'DMZ포럼'과 'DMZ 페스타'는 최고수준의 방역시스템 하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자체행사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파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민고충처리 읍부스만 위촉식'과 '수요포럼'을 전격 취소했다.

포천시도 20일 예정된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개최하려던 '한우축제'를 취소했으며, 연천군은 '10개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추세에 따라 추가로 행사를 취소하는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성기자

돼지열병 확산가능성 차단... 파주·연천 행사취소

20일~내달 6일 예정 행사

경기도가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파주·연천 등 DMZ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사람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면 취소된 행사는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기념 'Live DMZ' 콘서트(21일 파주 임진각) ▲2019년 평화통일마라톤대회(10월 6일 파주 임진각) ▲DMZ 트레일러닝(20~22일 파주·김포·연천~철원) 등 3개 행사다.

파주와 고양 일원에서 진행 예정인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대행사 상당부분은 축

소하거나 개최장소를 변경했다.

20일 임진각 망배단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 개최 장소는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으로 변경됐다.

영화제의 부대행사로 20~21일 파주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제3땅굴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DMZ다큐로드투어'와 'DMZ캠투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DMZ오픈시네마'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21~22일 임진각역 특설 야외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Korail DMZ특별열차' 운영도 취소됐다.

이에 따라 ASF가 발생한 파주 지역에서 진행되는 '야외행사'는 모두 취소되거나 개최장소가 변경

됐다.

이외에 'DMZ포럼(19~20일·고양)'과 'DMZ 페스타(18~21일·고양)'와 같이 파주·연천 등 질병발생지역 및 포천·동두천·김포·철원 등 '중점관리지역' 외에서 열리는 행사도 최고수준의 방역체계 하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도 개최 예정이던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파주시는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민고충처리 읍부스만 위촉식'과 '수요포럼'을 취소했다.

포천시는 20일 예정된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와 다음달 3~5일 개최하려던 '한우축제'를, 연천군은 '10개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연경환기자 jng@

평화를 모색하는 경기도 DMZ 포럼

분단 극복과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남북평화협력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가져올지 궁금하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19~2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19 DMZ 포럼'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9.19 공동성명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 킴족 여사, 미국의 평화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넵 여사가 기조연설을 한다. 킴족 여사는 베트남전 당시 폭격으로 등에 화상을 입고 옷도 못 입은 채 공포에 질려 뛰어가던 사진의 주인공이다. 스타이넵 여사는 전세계 여성운동과 여성 평화운동의 대모(大母)다. 2015년 전세계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DMZ를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는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 ▲서해경제공동특구 추진 ▲DMZ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등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킴족 여사는 그 사건 이후 겪은 트라우마와 평화운동가로 변신해가는 과정을 증언하며 남북 분단 극복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스타이넵 여사는 전쟁과 분단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에 중요한 까닭을 설명한다.

포럼은 특별세션과 기획세션으로 꾸며진

다. 특별세션은 ▲남북평화협력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다자협력 등을 주제로 열린다. 기획세션은 DMZ의 ▲역사 ▲생태 ▲지역개발 ▲관광 ▲협력 ▲화해 등 6개 테마 11개 마당으로 진행되며 경기연구원이 준비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각 세션 대표가 참가,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한다. 특별세션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대 교수,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중국의 리닝 장군, 러시아의 알렉산더 루킨 교수 등 국내·외 석학이 참석해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계적 석학들의 눈에 비친 DMZ의 의미와 가치가 자못 궁금하다. 그들의 인식이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세션에서도 DMZ의 평화적 활용과 문화유산 및 생태자원의 보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눈여겨볼만 하다. 도는 제시된 핵심 의견을 종합 정리해 평화와 DMZ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을 예정이다. 접경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폐막식에서 채택할 'DMZ 평화선언문'과 (가칭)DMZ 평화상 제정 및 관련 기구 설립도 유의미하다.

DMZ를 매개로 평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경기도의 도전을 응원한다.

돼지열병 퍼질라 ‘조마조마’ 경기도내 행사 줄줄이 취소

Live DMZ 등 3개 없던 일로
DMZ 다큐멘터리영화제는
파주→고양으로 장소 변경
학생 체험학습도 무기한 연기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내 주요 행사 및 일정들도 잇따라 전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 기념 ‘Live DMZ’ 콘서트(21일 파주 임진각 예정) ▶평화통일마라톤대회(10월 6일 파주 임진각 예정) ▶DMZ 트레일러닝(20~22일 파주·김포·연천·철원 예정) 등 3개 행사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파주와 고양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 장소를 파주 임진각에서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으로 변경하고, 부대행

사를 축소키로 했다. ‘DMZ포럼’(19~20일 고양)과 ‘DMZ페스타’(18~21일 고양) 등 파주·연천 등 질병 발생 지역 및 포천·동두천·김포 등 ‘중점관리지역’ 외에서 열리는 행사도 최고 수준의 방역시스템 아래 진행토록 조치했다.

20일 예정됐던 ‘포천시 스타인 품평회’와 다음 달 3~5일 개최하려던 ‘한우축제’ 및 ‘연천군 10개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개최 행사도 잇따라 취소됐다.

경기도의회도 오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예정됐던 농정해양위원회 의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 국외 연수 일정을 취소한 뒤 도 축산부서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에서의 현장체험학습 및

행사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임체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9일부터 잇따라 열릴 예정이던 ‘2019 파주학생 육상 한마당’과 ‘파평·문산지구 2019 지역과 함께 하는 학생예술축제’, ‘연천 청소년 교육의회’ 및 각종 연수 등 교육지원청 주관 행사를 전부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했다.

또 해당 지역 학교에 운동회와 학년·학급별 현장체험학습 등의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일부 기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이유로 체험학습 학생 출입이 어렵다고 통보함에 따라 학생들의 역사·평화·통일 의식 신장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파주와 연천지역에서 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1박 2일 평화통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진행 지역 변경도 논의 중이다.

전송표 기자 sp4356@kihoilbo.co.kr